

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
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



세종특별자치시의회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. 10. 14.(수)	사진 · 영상	사진(○), 영상(X)
보도일자	2026년 10월 14일(수)부터		
제 공	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	윤성규	044-300-7182

[2026 행정사무감사]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, “세종시 관내 국가지정유산 관리 안일… 책임 있는 행정 필요”

- 봉산동 향나무·연화사 안내표지 장기간 훼손 방치 지적, 문화유산 관리 부실 질타 및 조속한 정비 촉구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성규 의원(조치원읍, 더불어민주당)은 14일 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국가지정유산 주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정비와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.

윤 의원은 천연기념물인 ‘연기 봉산동 향나무’ 입구의 이정표와 국가지정유산이 소재한 ‘연화사’ 진입로의 안내표지가 훼손된 채 방치된 사례를 제시하며,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종시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.

윤 의원은 “천연기념물과 국가지정유산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만큼 그 가치에 걸맞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”며 “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기본적인 안내시설조차 여전히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문화유산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관리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”고 강하게 질타했다.

이어 “타지역에서 세종시의 문화유산을 찾은 방문객들이 훼손된 안내표지를 마주한다면 세종시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”며 “문화유산의 가치는 보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데서도 드러나는 만큼, 훼손된 안내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.